

日, 3년째 사도광산 추도식서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 안해

日정부 “고된 노동 종사...에도” 표현
韓, 강제노동 인식 지적하며 3년째 불참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을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지난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다.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이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갇혀 있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제작년이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추도 내용만 담았고, 당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추도식은 니가타현, 사도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약 70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에게 국화를 바치고 묵념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24년부터 열린 추도식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도식은 일본이 2024년 7월 사도광산의 세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을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지난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다. 올해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

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이 2024년 첫 추도식을 준비하면서부터 행사 이름과 추도사 등에서 조선인 노동 강제성 등을 둘러싸고 한국 측과 큰 견해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별도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해마다 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도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일본 측이 결정상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년)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에는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이 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강제노동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문도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일본 측 추도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이날 추도식에서 희생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 관계자들의 인사말만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니가타현립문서관이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소장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열차 탈선 44명 부상...경찰 “파괴공작 의심”

프랑스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에 44명이 다쳤다. 당국은 파괴공작으로 의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7시 45분께 프랑스 북서부 루앙과 캉 사이를 운행하던 지역급행열차(TER)가 센마리팀주 클레옹 인근에서 선로를 벗어났다.

열차에 타고 있던 188명 가운데 44명이 다쳤고 18세 여성 1명은 중태다.

승객 루이(24)는 ICI노르망디 라디오에 “갑자기 열차가 덜컹거렸고 3초쯤 지나 충격이 더 강해졌다. 창문이 일부 깨지고 돌들이 열차 안으로 날아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철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파괴공작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AFP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와 동부 루블린을 연결하는 철로에서 폭파장치와 탈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 클램프(고정용 조임쇠)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화물열차가 통과하던 중 터졌으나 충격이 작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된 우크라이나인 2명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민주공고 북서부서도 에볼라 확진자

에볼라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공고민주공화국(민주공고)에서 기존 발병 지역인 북동부 6개주가 아닌 북서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공고 북서부 수드방기주 구아카에서 지난 8일 사망한 남성이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장 자크 무엠베 민주공고 국립생물의학연구소(INRB) 소장이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주 동안 에볼라 발병 지역인 북동부 남기부주에서 출발해 르완다와 우간다를 거쳐 민주공고로 돌아온 뒤 이투리주와 초포주 등 에볼라 발병 지역을 지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그가 도로와 강을 이용해 이동한 만큼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인접 주와 이웃 국가들이 잠재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폭발물 실은 비행기 美로” 경고...CIA, 9·11 기밀자료 공개

美, 클린턴·부시 시절 ‘브리핑’ 71건 공개
‘美 본토 공격 선호’·‘항공기 납치 훈련’ 등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참사 25주년인 11일(현지시간)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그 수장이던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한 정부 기밀자료를 대거 공개했다.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9·11 테러로 희생된 분들과 그 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CIA 요원들을 기리기 위해 71건의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 공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극비 자료로, 대통령 일일 브리핑 보고서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랫클리프 국장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중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2004년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지적했던 대

로 미 정보기관은 당시 알카에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들은 1998년 2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대량살상 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테러리스트들’이란 제목의 파일부터 9·11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해당 공격이 2년 동안 계획돼 왔으며, 미 의회 의사당도 표적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다양하다.

AP 통신과 NYT 등 CIA 공개 자료를 분석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1988년 7월 보고서에는 ‘빈라덴이 미국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가 화학·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같은 해 9월 보고서에는 ‘빈라덴이 워싱턴DC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옵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알카에다가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 도시에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NYT는 “25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보

면 선견지명이 있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1988년 12월 보고서에는 빈라덴 네트워크의 일부 멤버들이 항공기 납치 훈련을 받았으면서 비행기 납치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AP는 “다른 문서들은 방사성 물질을 주입한 재래식 무기인 ‘더티 폭탄’ 제조를 위한 재료를 확보하려 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자들에 따르면 1999년 6월 무렵까지 빈라덴의 요원들은 에너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폭발물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테러 공격 한 달 전인 2001년 8월 6일에는 “빈라덴, 미국 공격 결심”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 당시 정보 당국자들은 뉴욕의 연방 청사에 대한 감시 활동을 포함해 항공기 납치나 기타 유형의 공격 준비와 일치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빈라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미 전역에서 약 70건의 전면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문의) 062-464-3466